

서울, 백담사 만해마을, 금강산서 인류평화 위한 '시적 울림'

북측 시인들 불참으로 일말의 아쉬움

100여편 평화시 《평화, 그것은》 출간, 월본은 민해박물관에 전시

“북한 조선문학가동맹 측에 초청장을 발송하고 지난 7월 북한을 방문, 관련자들과 협의를 진행했습니다만 북측 시인들의 참석 여부에 대한 답신은 받지 못했습니다. 금강산은 북한 땅이니만큼, 금강산 방문 시 북측 시인들이 나와 세계평화시인대회에 참석한 세계 시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리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세계 각국의 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계평화와 인류공존을 주창한 세계평화시인대회가 당초 참석을 기대했던 북측 시인들의 불참으로 아쉬움을 남겼다. 지난 8월 11일 신라호텔 다이너 스티홀에서 가진 세계평화시인대회 기자간담회에서 권영민 준비위원장이 조심스레 밝힌 바람은 그러나 '기대'에 그치고 말았다.

금강산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권영민 준비위원장은 “북한 시인들이 참석하지 못해 유감스럽지만 그래도 시인들은 계속 평화를 노래할 수밖에 없다고 참석한 시인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한용운 선생이 세계 시인의 반열에 오르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아쉬움을 달랬다.

2005년 만해축전의 일환으로 준비된 세계평화시인대회가 지난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서울과 백담사 만해마을, 북한 금강산을 거치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세계평화시인대회에는 노벨문학상 수상시인 월레 소잉카, 영미 계관시인 로버트 핀스키를 비롯한 해외 유명시인 28명과 정현중, 오세영 등 국내 원로 및 중견시인 50여 명이 참석해 인류의 평화와 공존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세계평화시인대회 대회장으로 추대된 고은 시인은 '대회장 인사'를 통해 “한반도의 남과 북은 지구상의 평화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라는 처절한 질문의 발생지”라며 “세계 각국의 대표적 시인들이 모여 평화의 본질이 곧 시의 본질임을 확인하는 일이 이 커다란 이름의 세계평화시인대회의 목적”이라며 참석한 시인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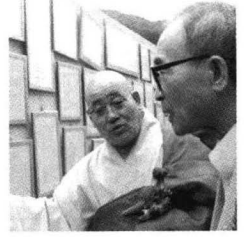
반겼다.

조계종 총무원장 김법장 스님 역시 “대한민국 광복 60주년과 만해 출가 100주년이 되는 해에 세계평화시인대회라는 성대한 행사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평화의 시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물론 세계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기원하는 소중한 메시지로 널리 울려 퍼질 것”이라며 이번 대회의 의미를 전했다.

8월 1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가진 리셉션에 모인 대회 참가 시인들은 이튿날 2005 만해축전 개막식과 만해대상 시상식이 열린 강원도 백담사 만해마을을 방문, 만해의 업적과 시적 성취를 기렸다. 이날 만해대상 시상식에서는 평화부문에 달라이 라마 티베트 망명정부 수반이, 문학부문에 세계평화시인대회에 참석한 나이지리아 시인 월레 소잉카가, 학술부문에 이지관 가산불교연구위원장이, 실천부문에 함세웅 신부가 각각 수상했다.

문학부문을 수상한 월레 소잉카는 “어둡고 깊은 산 속에서 험한 작업을 하며 조그만 금덩이라도 캐내 세상에 더 많은 빛을 주려는 이들이 바로 시인”이라며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왜 아름다움과 평화로움을 배우지 못하고 전쟁과 폭력을 이어가야 하는지 시인들이 대답할 수는 없지만, 대신 사람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다”는 인상적인 수상소감을 전하며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14일 폐막식에 앞서 열린 <시와 평화> 심포지엄에서는 미국의 계관시인 로버트 핀스키와 월레 소잉카가 기조연설을 가졌다. 로버트 핀스키는 <예술의 까다로운 진실>이란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만해의 시들은 승리의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얽히고설킨 회의를, 성취된 평화라는 종교적 수사가 아니라 투쟁의 목표로서의 평화를, 그리고 구원이 아니라 갈망을 제시했다”며 만해의 업적을 높이 평가했다. 월레 소잉카는 <창의성과 평화>란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유린과 황폐의 황금시대들은 시인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데 실패해 왔다”며 “권력을 추구하는 역사의 기념비들이 먼지로 변할 때에도 시인들의 불멸의 정신은 세상을 밝히는 불빛으로, 세계평화의 노래를 부를 인간화합의 대로를 향한 문을 여는 열쇠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발제자로 나선 프랑스 시인 장미셸 몰푸아는 “시인의 세상에 대한 의무는 타자에 대한, 동포에 대한, 혹은 후세에 대한 의무”라며 시인의 의무에 대해 역설했다. 일본 시인 이쿠라 고헤이는 “인간은 ‘사라’라고 불리는 누군가를 찾아 헤매는 영원한 나그네”라면서 “그것은, 인류의 비장한 소원인 영원한 평화를 바라는 나그네의 이미지”라는 독특한 사유를 개진했다.

8월 11일 신라호텔에서 가진 ‘평화의 시 낭송 1부’ 프로그램 진행으로 시작된 세계평화시인대회는 12일 만해축전 개막식 및 만해상 시상식 참석, 북한입국 및 ‘평화의 시 낭송 2부’ 프로그램

진행, 13일 금강산 삼일포 관광, 14일 <시와 평화> 심포지엄과 시집 《평화, 그것은》출판기념회를 끝으로 장대한 여정의 마침표를 찍었다.

한편 서울과 금강산에서 진행된 ‘평화의 시 낭송’에서 소개된 평화를 주제로 한 국내외 시인들의 시 100여 편이 《평화, 그것은》이라는 제목으로 묶여 민음사에서 출간됐다. 《평화, 그것은》출판기념회 자리에서 대회 준비위원회 측은 “시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한 아름다운 만남의 자리가 되었다”며 “시인들의 자필로 쓴 작품 원본은 백담사 만해마을 만해박물관에 보존 전시하며, 이를 동판으로 제작해 ‘평화의 벽’을 장식할 것”이라고 밝혔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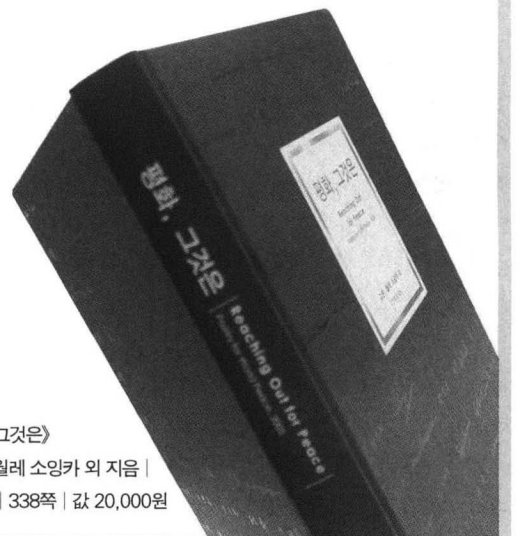
정리_박용두 기자 | 사진제공_프레이시안 최서영 기자

세계 127명의 시인들이 보내온 평화의 메시지

시집 《평화, 그것은》은 인류의 평화를 기원하며 세운 ‘언어의 기념비’다. 한반도를 오가며 펼쳐진 이번 세계평화시인대회를 위해 세계 각국 127명의 시인이 평화를 주제로 쓴 시를 한국에 보내왔고, 출판사 민음사는 정성을 들인 고급장정으로 엮어 그들의 노고에 멋지게 화답했다. 고은, 장미셸 몰푸아, 제프 페이지, 이쿠라 고헤이, 매니 라오, 이리나 트미트리예바, 윌레 소잉카 등 세계의 시인들이 펼쳐내는 수사는 각기 다르나 평화를 바라는 울림은 같다.

고은은 “그것은 실렘/총구멍에서 눈물이 흘러나오는 것/그것은/더하기보다 빼기/곱하기보다 나누기”(《그것》)라는 절절한 은유를 통해 그것, 곧 평화를 기원하며, 이종수 호마누 지 산타나는 “사람들은 전쟁을 사랑한다, 그래서/그들은 의심스러운 죽음의 제전을 위해/일제히, 그리고 똑같은 색깔로 기꺼이 무장을 한다”(《전쟁을 사랑하는 사람들》)는 지독한 반어로 평화의 의미를 전한다. 평화라는 관념적인 단어에 따뜻한 숨을 불어넣는 그들의 작업을 통해, 우리는 평화라는 것이 정녕 무엇인지 만져볼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평화, 그것은》은 세계 각 시인들의 육필본까지 함께 담아 의미를 더했다. 소통이 어려운 이국의 문자지만, 육필본에 깃든 평화를 향한 시인들의 경건한 마음은 충분히 소통된다.



《평화, 그것은》
고은·윌레 소잉카 외 지음 |
민음사 | 338쪽 | 값 20,000원